



놀이터의 회오리바람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김혜연 글 / 이광익 그림



표지 탐색하기

<놀이터의 회오리바람>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 1) 책 제목 '놀이터의 회오리바람'을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 3)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면서 본문에 나올 이야기를 예상해 봅시다.

놀이터에 회오리바람이 불면 엄청난 일이 생긴다!

영어 학원에 가기 싫은 철이.
강아지를 기르고 싶은 훈이.
엄마한테 혼나고 뽕뽕이를 타는 형제에게 놀라는 일이 생기는데…….

- ① '철이'와 '훈이'는 어떤 관계이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나요?
↳
- ② 뽕뽕이를 탄 '철이'와 '훈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하여 써 보세요.
↳



놀이터의 회오리바람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김혜연 글 / 이광익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놀이터의 회오리바람>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햇볕이 고여 있는 정자 안에서 할아버지 몇 분이 모여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 두 명이 자전거를 타고 있을 뿐이었다.
 - “하지만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일이 닥칠 거야.”
 -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질색했다.
 - 형을 아프게 해서 유감이긴 하지만 절대 헤어질 수 없었다.
 - “괜히 개를 집적거리고 귀찮게 했구먼. 지 애비랑 어쩔 그리 똑같은까.”
- (나) • 훈이는 결혼식장에서 사랑의 맹세를 하는 신랑처럼 놀이터가 찌렁찌렁 울리게 대답했다. 가까이에 벌레나 새들이 있었다면 ㉠□□□□했을 거다.
 - 철이는 발로 강아지를 밀었다. 강아지는 장난치는 줄 알았는지 ㉡□□□□로 철이한테 덤벼들어 얼굴을 핥으려 했다.

1) (가)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 ① 능히 건디어 내다.
- ② 몹시 싫어하거나 꺼리다.
- ③ 말이나 행동으로 자꾸 남을 건드려 성가시게 하다.
- ④ 물 따위의 액체나 가스, 냄새 따위가 우묵한 곳에 모이다.
- ⑤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 있다.

2) (나)의 빈칸 ㉠~㉡에 들어갈 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 ㉠ : 기절하거나 까무러칠 정도로 몹시 놀라 질겁을 함.
- ㉡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놀이터의 회오리바람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김혜연 글 / 이광익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놀이터의 회오리바람>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가 벌어진 서연이의 앞니가 아랫입술에 닿자 마이클 선생님의 발음과 비슷한 '후렌드'가 나왔다.

· “둘째, 첫 번째 원칙이 지켜진다는 ()하에 강아지가 너희를 문다거나 공격할 것 같으면 즉시 강아지를 이 놀이터로 데리고 올 것.”

· 뽕뽕이를 몇 바퀴 더 타다가 내려오니 공원에 ()이 내려오고 있었다.

· ()에라도 걸린 표정으로 누워 있다가 훈이를 보더니 금세 얼굴이 밝아졌다.

· “()가 없는데 난들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답답해.”

(나) 햄스터는 너무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 가끔 ㉠까먹곤 했지만 강아지는 그렇게 앓을 텐데, 엄마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어떻게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는지 신기했지만 엄마는 그럴 수 있다고 했다.

1)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 ① 잇새 : 이와 이의 사이.
- ② 불치병 : 고치지 못하는 병.
- ③ 어스름 : 조금 어두운 상태. 또는 그런 때.
- ④ 당사자 :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
- ⑤ 전제 :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2) (나)의 밑줄 친 ㉠~㉡의 뜻을 아래에서 찾아 알맞게 짝을 지어 쓰세요.

- ㉠ 일부만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안다는 말.
- ㉡ (속되게) 어떤 사실이나 내용 따위를 잊어버리다.



놀이터의 회오리바람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김혜연 글 / 이광익 그림



독해력 쑥쑥 키우기

<놀이터의 회오리바람>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철이도 그렇게 해 보았다. 앞으로 아랫입술로 짹 물고. / “푸렌드.”

서연이가 푸하하 웃었다. / 철이는 서연이처럼 소리를 낼 수 없었다. 비밀은 서연이의 앞니에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앞니가 멀쩡한 지민이와 솔미는 어떻게 ‘후렌드’라고 발음하는 거지? / 철이는 아무래도 자기 혀나 입술, 이가 영어 발음을 잘할 수 없게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래서 영어 학원 가는 게 정말 싫다. 영어 학원에서 쓰는 자기 이름 벤자민도 싫다.

(나) 엄마는 화가 나 있었다. 이럴 때 강아지 얘기 같은 건 꺼내 봤자지만 눈치 없는 훈이는 벌써 쏟아 내고 있었다. / “나 강아지 키우게 해 줘요. 잘 키울게요. 밥도 잘 챙겨 주고 목욕도 시키고 오줌 누는 연습도 시키고 내가 다 할게요. 애견 센터에 새로 온 개가 되게 귀여운데 빨리 데려와야 할 것 같아요.”

훈이는 진지하게 말했는데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니들 둘 다 야단 좀 맞아야 정신 차릴래? 한 놈은 하라는 거 안 하겠다고 버티고. 또 한 놈은 안 된다는 거 하겠다고 조르고. 말들 안 들어서 내가 못살겠어.”

1) (가)~(나)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가) 철이 : □□ □□을 잘할 수 없어서 친구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 □□가는 것이 정말 싫고, 그곳에서 쓰는 자기 이름 □□□도 싫었음.

(나) 훈이 : □□□를 키우고 싶어서 자신 이 모두 돌보며 □□□□고 진지하게 말 했는데, □□□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안 된다고 했음.

2) (나)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철이’와 ‘훈이’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 쓰세요.

↳



놀이터의 회오리바람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김혜연 글 / 이광익 그림



독해력 쑥쑥 키우기

<놀이터의 회오리바람>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자, 이제부터 이 강아지를 키우는 세 가지 원칙을 알려줄 테니 잘 들어라.”

훈이가 강아지를 받아두고 울음을 그치자 아줌마가 진지한 얼굴로 말하기 시작했다. / 철이에게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발끝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침으로 방울을 만들면서 빨리 끝나길 기다렸다.

그러나 기분이 끝내주게 좋아진 훈이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아줌마 말에 귀 기울였다. / “첫째, 강아지가 너희를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절대로 강아지를 구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 둘째, 첫 번째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강아지가 너희를 문다거나 공격할 것 같으면 즉시 강아지를 이 놀이터를 데리고 올 것. 셋째, 키우기 싫어졌다고 버리지 말 것.”

(나) 엄마 아빠는 귀를 막았다. / 그렇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아빠가 결국 행복하고 말했다. 알레르기보다 훈이와 철이의 울음소리가 더 무서운가 보았다.

“대신 베란다에만 있게 해. 집 안에 들어오면 절대 안 돼. 집 안에서 강아지가 발견되는 즉시 쫓아낼 거야. 알았지?” / 아빠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퇴각했다. 계속 에취 에취, 재채기를 해 댔다. 아무래도 기침 소리가 수상했다.

1) (가)에서 ‘아줌마’의 말에 대한 ‘철이’와 ‘훈이’의 반응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철이 : 아줌마의 소리가 □□□로 들려서 발끝으로 □□을 그리거나 침으로 □□을 만들면서 빨리 끝나길 기다렸음.



훈이 : □□이 끝내주게 좋아져서 □□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아줌마 말에 □□□□.

2) (나)에서 ‘아빠’의 기침 소리가 아무래도 수상했던 이유를 추측하여 써 보세요.
↳



놀이터의 회오리바람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김혜연 글 / 이광익 그림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놀이터의 회오리바람>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철이가 소리를 지르자 강아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꼬리도 흔들지 않았다. 철이는 강아지를 발로 한 번 찼다. 강아지가 불쌍하게 갹! 소리를 냈다. 겁에 잔뜩 질린 모습이었다. / 강아지가 겁을 먹을수록 철이는 힘이 세지는 느낌이었다. / 철이는 강아지에게 가까이 가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작은 강아지는 구석으로 가서 몸을 움츠리고 울었다. 깨갱깨갱 깨갱깨갱.

철이의 발길질은 점점 더 세졌다. 철이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잠시 잊고 말았다. / “형! 뭐하는 거야. 하지 마!” / 커다란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 아빠가 방으로 들어왔다. / “히익!”

아빠가 강아지를 보곤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엄마, 형이…….” / 훈이는 형을 가리키며 엄마를 보았다.

“형이 이상해. 강아지한테 물렸나 봐.” / 엄마가 철이한테 달려가 이마를 짚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이 나는 거야? 철아! 정신 좀 차려 봐.” / 엄마가 철이 얼굴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걸었지만 철이 입에서는 앓는 소리만 났다.

1) (가)에서 ‘철이’는 ‘강아지’를 발로 한 번 찼다가, ‘강아지’가 겁을 먹을수록 점점 발길질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이’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철이’에게 생긴 일을 쓰고, 이에 대해 가족들은 어떻게 했는지 쓰세요.
↳



놀이터의 회오리바람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김혜연 글 / 이광익 그림



독해력 쑥쑥 키우기

<놀이터의 회오리바람>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형 얼굴이 좀 이상했다. 특히 눈이. 눈동자 색이 푸르스름한 것이 강아지 마이클 같았다. 훈이는 눈을 비비고 나서 다시 철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마이클이었다! 세상에! 마이클 눈이 확실했다. 철이 눈은 이렇지 않았다.

훈이는 놀라서 뒤로 한 발 물러섰다. / “내가 누군지 알겠어? 나야. 네 강아지. 철이랑 나랑 몸이 바뀌었어.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갑자기 내가 철이가 되어 있는 거야. 나, 그러니까 니네 집에 있는 마이클이 철이야. 나는 마이클이야. 이 이름 정말 맘에 들지 않지만 아무튼 내가 마이클이라고.”

(나) “그런데 넌 어떻게 병원에 있는 게 훈이가 아니란 걸 알았니?”

훈이 아빠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이에게 물었다. 서연이까지 덩달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테스트라도 해 보고 싶었나 보았다.

“철이에게 영어 단어를 물어봤어요. 철이 발음 정말 웃기거든요. 학원 애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병원에 있는 애는 철이처럼 발음하지 않았어요. 눈도 이상했고요. 눈동자가 푸르스름한 게…….” / 훈이 아빠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1) (가)~(나)에서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가) : 훈이가 철이의 □□을 자세히 보니 강아지 마이클의 □이 확실해서 놀랐고, 철이는 자신이 강아지 마이클이라며 □□랑 자신이랑 □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나) : □□ □□가 서연이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서연이는 철이의 □□ □□이 웃겨서 모두 알고 있는데, 그 애는 □□처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

2) (가)~(나)에서 ‘훈이’와 ‘서연이’가 ‘철이’의 얼굴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을 쓰세요.

⇨



놀이터의 회오리바람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김혜연 글 / 이광익 그림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놀이터의 회오리바람>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언제나 사랑하란 말이죠?” / “그래. 강아지는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 그리고 전에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아지는 주인이 놀이터에 버리고 갔어. 또 버림 받으면 얼마나 슬프겠니?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 왜 동물을 키우는지 모르겠어. 키우다가 귀찮다고 갖다 버리고. 제대로 돌보지 못해 죽이거나 하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 에이.”

훈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죽어 버린 햄스터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줌마는 강아지, 그러니까 철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너는 너랑 바뀐 애랑 만나게 되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잊지 마라.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 영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꼭 사과해. 알겠니?”

(나) “콩이야, 그 강아지 이름.” / 여자 손에는 강아지 모양의 은색 이름표가 있었다.

“잘 키워.” / 여자는 이 말만 하고 뒤돌아서 달려갔다.

이름표에는 ‘콩이, 2010년 5월 1일 태어남.’이라고 쓰여 있었다.

1) (가)에서 ‘아줌마’는 ‘강아지’의 상황을 설명하며 동물을 대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어떻게 대하며 키워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여자’는 누구인지 쓰고, ‘여자’를 나타내는 말을 (가)에서 찾아 쓰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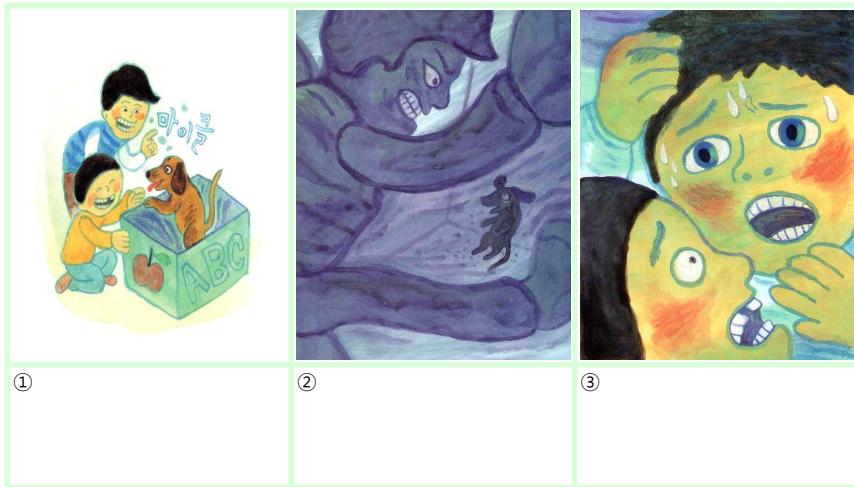
놀이터의 회오리바람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김혜연 글 / 이광익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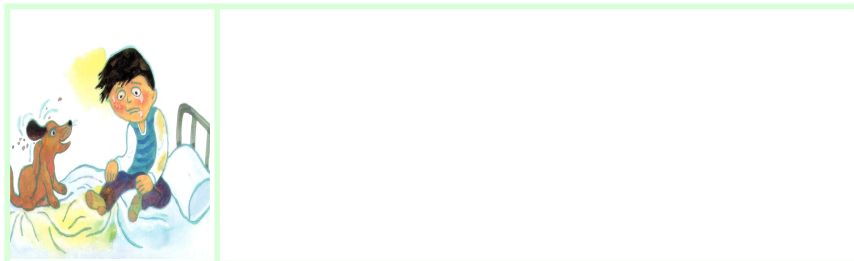


독해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1) 다음은 <놀이터의 회오리바람>에 나온 그림들입니다. 각각의 그림을 보고, '철이'와 '훈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인지 쓰세요.



2) 이 이야기에서 '철이'는 강아지 '마이클'을 괴롭히다가 서로 몸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강아지와 몸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여 써 보세요.



놀이터의 회오리바람 (초등 3단계)

뜨인돌어린이 | 김혜연 글 / 이광익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1쪽	(예시답안) 1) 놀이터에 회오리바람이 불어와서 생긴 이야기일 것 같다. 2) 두 남자아이가 왼손으로 뽕뽕이의 철봉을 잡고, 오른손을 들고 즐겁게 웃으며 뽕뽕이를 타고 있다. 뽕뽕이에 강아지가 있고, 그 모습을 아줌마가 의자에 앉아 보고 있다. 3) ① 철이와 훈이는 형제이고, 철이는 영어 학원에 가기 싫고, 훈이는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 한다. ② 뽕뽕이를 탄 '철이'는 영어 학원에 가지 않을 것 같고, '훈이'는 강아지를 기를 수 있게 될 것 같다.
2쪽	1) ㉔, ㉑, ㉒, ㉕, ㉓ 2) ㉑ : 기철초풍, ㉔ : 막무가내
3쪽	1) ㉑, ㉕, ㉓, ㉒, ㉔ 2) ㉑ : ㉔, ㉔ : ㉑
4쪽	1) (가) : 영어 발음, 영어 학원, 벤자민 (나) : 강아지, 잘 키운다. 엄마 2) 한 놈은 하라는 거 안 하겠다고 버티고, 또 한 놈은 안 된다는 거 하겠다고 조르고.
5쪽	1) 철이 : 잔소리, 그림, 방울 / 훈이 : 기분, 눈, 귀 기울였음 2)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아빠가 재채기를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6쪽	1) (예시답안) 처음에 철이는 강아지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발로 한 번 찼다. 강아지가 겁을 먹을수록 철이는 힘이 세지는 것 같아 점점 세게 때렸다. 철이가 강아지를 때린 것과 강아지보다 우월한 힘을 느껴 더 큰 폭력을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2) 철이가 강아지에게 물려서 쓰러지자 훈이는 철이를 가리키며 엄마 아빠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엄마는 철이의 이마를 짚고 얼굴을 두드리며 말을 걸었다.
7쪽	1) (가) : 얼굴, 눈, 철이, 몸 (나) : 훈이 아빠, 영어 발음, 철이, 발음 2) 철이의 눈동자 색이 푸르스름한 것
8쪽	1) (예시답안) 키우면서 괴롭히고, 귀찮다고 버리고, 제대로 돌보지 못해 죽이는 등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인간들은 동물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물도 귀중한 생명체라고 생각해야 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예전 강아지의 주인으로 강아지를 버린 사람,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인간
9쪽	1) ㉑ 철이와 훈이가 강아지의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짓는 장면, ㉒ 철이가 강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하는 장면, ㉓ 훈이가 철이의 눈동자를 보고 강아지 마이클과 철이의 몸이 바뀐 것을 아는 장면 2) 생략